

주님의 세례 축일 감사성찬례

집전/설교: 최용준 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선창: 박어거스틴 반주: 당그레고리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 성공회 산본교회

개회예식

- †입당성가 ..... 308장 ..... 다 함 께
- †정심(淨心)기도 ..... 6쪽 ..... 집 전 자
- †죄의고백 ..... 6쪽 ..... 다 함 께
- †영광송 ..... 93쪽(B곡) .....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 집 전 자  
사랑의 하느님, 의로우신 성자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어 우리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소서.

1독서 ..... 이사 42:1-9 ..... 말 은 이  
성 시 ..... 29편 ..... 다 함 께



- 1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아, 주님께 돌려 드리리라.  
○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리라.
  - 2 그 이름이 지니는 영광 주님께 돌려 드리리라.  
○ 거룩한 빛 두르신 주님께 머리를 조아려-라.
  - 3 주님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 영광의 하느님께서 천둥소리로 말씀하신다.
  - 4 주께서 바닷물 위에 나타나신다.  
그 목소리는 힘차시고  
○ 그 목소리는 |장엄|하시다.
  - 5 주께서 거센 물결 위에 옥좌를 잡으시고  
○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셨다.
  - 6 주님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새 힘을 얻-이고  
○ 복을 받아 평화를 |누리어-라.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 |멘

2독서 ..... 사도 10:34-43 ..... 말 은 이  
†복음환호송 ..... 집 전 자  
†복음서 ..... 마태 3:13-17 ..... 집 전 자

설교 .....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 16쪽 .....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 †평화의 인사 ..... 22쪽 ..... 다 함 께
  - †봉헌성가 ..... 426장 ..... 다 함 께
  - 성찬기도 ..... 23쪽 ..... 1 양 식
  - 거룩하시다 ..... 101쪽(B곡) ..... 다 함 께
  - 주의기도 ..... 28쪽 ..... 다 함 께
  - 성체나눔 ..... 29쪽 ..... 다 함 께
  - 하느님의 어린양 ... 104쪽(B곡) ..... 다 함 께
  - 성체성가 ..... 283장 ..... 성 가 대
  - †영성체후기도 ..... 31쪽 ..... 다 함 께
-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말씀과 성사의 빛으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어 세상 끝 날까지 주님을 알고 경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 †축복기도 ..... 32쪽 ..... 집 전 자
  - †파송성가 ..... 282장 ..... 다 함 께
- (†는 일어섬)

	이번 주일(1월 11일)	다음 주일(1월 18일)
1독서	권순호	박순호
2독서	황선숙	정연창
대 도	이숙영	정국진
다음주일 전례독서	이사 49:1-7   시편 40 1고린 1:1-9   요한 1:29-42	
성 가	254   344   423   360	
복 사	백수빈 이하린	보혈조력 정스테반
다음주간 교회청소	백남진 박선희 신동홍 홍종분	

(1997-2026 / 교회설립 29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6년 1월 11일 주님의 세례 축일 · 가해 · 백색

제30-2호

하늘이 열리고, 새로 태어나는 세례의 은총



요르단 강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은 세례성사의 근원이자 그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죄인들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시려는 하느님의 겸손한 사랑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요한은 주님께 감히 세례를 드리기를 사양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며 스스로 인간의 처지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앉으며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공적 선포이자, 하느님께서 당신 뜻 안에 하나된 세상을 시작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온 성령은 곧 우리에게도 주어져, 우리 역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세례도 바로 그 순간과 이어집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 이 세상의 한 구성원을 넘어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납니다. 세례는 단순히 한 예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언약이자 평생의 여정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고, 냉랭한 마음들 사이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며, 우리 각자의 세례를 다시 기억해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그 음성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존엄과 사명을 새롭게 되새기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구장 김장환(엘리아)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올리야나)

2026년 서울교구장 주교 신년 사목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고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2026년 서울교구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표어 아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기후 위기 등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구체적인 하느님 통치의 현장입니다.

교회의 신뢰와 선교의 힘은 제도나 규모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삶에서 나옵니다. 죄인을 환대하신 포용의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이 교회의 중심에 자리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새롭게 하는 자리가 바로 감사성찬례입니다. 성찬례는 교회의 중심이며 생명입니다. 정성껏 준비된 전례와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느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느님 나라의 은총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말씀과 삶을 나누는 소모임은 사랑의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아울러 기도는 예배와 공동체, 선교를 떠받치는 영적 토대입니다. 공기도와 성무일과의 회복은 단순한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느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근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과 피조세계로 확장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 됩니다. 이는 성공회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선교정신이며,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요청되는 사명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소모임으로 모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서울교구의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교우들을 은총으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1일 거룩한 이름 예수 축일  
성공회 서울교구장 김장환 엘리야 주교

이번 주간 외울 말씀 23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루가복음 1장 37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주님의 세례 축일

오늘은 주님의 세례 축일로 지킵니다.

전례색: 백색, 전례곡 B곡, 기원송가: 영광송(B곡)

◆ 공현 후 절기(연중절기) 시작

이번 주간부터 사순절 첫날(2/18)전까지를

공현 후 절기(연중절기)로 지킵니다. 전례색: 녹색,

전례곡: C곡,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 알림

◆ 1월 교회위원회 결의 사항

- 2025년 회계보고 및 2026년 예산(안) 논의

- 2026년 사목과 선교 계획서 논의

◆ 성직자 인사 발령 (이임: 2월 1일, 부임: 2월 8일)

최용준 배우로 신부 → 수원교회 관할사제

조준행 프란시스 신부 → 정년퇴임(발령 2. 28일)

김문영 키프리안 신부(현 부천교회 관할사제)

◆ 어린이 예배 (매월 둘째, 셋째 주일)

오늘(11일)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 찬양 예배

오늘(11일) 오후 1시 10분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 2026년도 십일조(월정헌금) 봉헌 서약

성전 입구에 비치된 봉헌 서약서를 기도 가운데

작성하여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

아서 2월 1일 주님의 봉헌 축일에 함께 봉헌합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담은 마음입니다.

◆ 신자사역자 모임

1월 14일(수)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 신년하례회

1월 13일(화) 오전 11시 / 서울주교좌성당

◆ 2026년 교사 헌신예배<예수님과 함께하는 브런치>

1월 17일(토) 10:30 / 서울주교좌성당 프란시스홀

■ 교우 소식

◆ 생일 축하합니다

이동우(12일) 김소정(15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600,000원

김대식 김운권/홍양금 김준우/조장은

■ 주일헌금 266,000원

권순호 김승현 류한신 박종례 백옥경 신동흥

유근상 유정훈 이원주 이윤식 임혜지 장성환

장재현 장태현 채희영 최순덕 최용욱 황선숙

■ 신년감사 360,000원

권순호/황선숙 길재경 유근상 이은경 차현수

최미혜/이상현 최순덕

■ 감사헌금 340,000원

유아윤(생일) 이지선 이형석/디아나(여행 감사)

조준행신부(은혜) 주영선 최하현(합격)

차준섭신부/김승숙(범사)

◆ 주간 전례독서 (1월 12일~17일 / 공현 후 1주간)

	독서	복음
12일(월)	사무상 1:1-8	마르 1:14-20
13일(화)	사무상 1:9-20	마르 1:21-28
14일(수)	사무상 3:1-10, 19-20	마르 1:29-39
15일(목)	사무상 4:1-11	마르 1:40-45
16일(금)	사무상 8:4-7, 10-22	마르 2:1-12
17일(토)	사무상 9:1-4,17-19,10:1	마르 2:13-17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위하여

-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 환대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 주님을 만날 때까지 품고 기도합니다.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권영분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김형기 박종례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근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영 최숙진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